

LG화학, 2003년 순이익 3621억원

매출액 5조6725억원에 경상이익 4828억원 ... 사외이사 비율 57.1%

LG화학이 3월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3년 임기의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오호수 인베스트스글로벌 고문,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좌연구원, 이영무 한양대 응용화학공학부 학부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이다.

또 사내이사로는 LG화학 대표이사인 노기호 사장이 재선임됐으며 조석제 부사장(LG화학 CFO)은 신규 선임됐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이사는 사외이사 4명 및 사내이사 3명 등 모두 7명이며 사외이사 비율은 57.1%가 됐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오호수, 이영무, 김건식 등 3명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한편, LG화학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LG화학은 2003년 매출액 5조6725억원, 경상이익 4828억원, 당기순이익 3621억원의 영업실적을 승인받았으며, 1주당 액면가 대비 35%의 배당(보통주 1750원 및 우선주 1800원)을 실시해 35.4%의 배당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3/18>